

【논문】

성스차이(盛世才)의 항일 정책과 신장 통치 공고화(1935~1941)

이 선 희*

차례

- I. 머리말
- II. 중국공산당원의 유입과 통치 기반 확충
- III. '항일 후방 기지' 구축과 대중 동원
- IV. 맺음말

국문초록

중일전쟁 시기 신장(新疆)은 전장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일 후방 기지로서 대규모 모금 운동과 선전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기존 연구는 이러한 항전 활동을 중국공산당의 사상 정치 공작, 중소 양자 협력의 산물, 혹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형성의 결과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시기 신장은 성스차이(盛世才)의 집권기였으며, 그는 1933년 군권을 장악한 이후 집권 초반부터 반제(反帝), 특히 항일을 통치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신장에서의 항전 활동은 이러한 성스차이의 통치 기조와 분리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본고는 1935년부터 1941년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신장의 항일 동원이 외부 세력의 주도가 아니라 성스차이가 통치 공고화 전략의 일환으로 직접 기획·운영한 것이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성스차이는 신장민중반제연합회(반제회)를 설립하고 회장직을 직접 겸임하였다. 반제회의 조직 편제는 신장성 정부 행정 계통을 그대로 동원 구조로 전환한 것이었으며, 중국공산당원의 신장 유입 역시 성스차이가 통치의 필요에 따라 기획하고 통제한 것이었다. 중국공산당원들은 신장에 들어온 이후 교육·재정·

* 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언론 부문의 실무직에 배치되어 성스차이에 의해 임명되었을 뿐, 정책 결정의 권위는 반제회 회장직을 겸임한 성스차이에게 있었다. 항일 모금 활동의 지휘 계통 역시 신장성 정부가 반제회에 지시하고 반제회가 각 구분 회로 하달하는 구조였으며, 모금 활동의 범위와 방식은 성스차이가 직접 결재하였다. 또한 성스차이는 소련·국민정부 양측과의 교섭에서 비행기 제조공장 지분 참여와 항공학교 설립을 중앙정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제기하는 등 신장성 정부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 하였다.

성스차이의 항일 동원이 이념적 신념이 아니라 통치 전략의 산물이었음은 그의 행보에서도 확인된다. 1938년 9월 성스차이는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과 직접 회담하면서 소련공산당에 입당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달라고 요청하였다. 소련을 향한 충성심을 가시적으로 표명하면서도 그것을 철저히 통제하려 한 이 장면은, 성스차이의 친소·항일 노선이 이념적 친연이라기보다 국가 간 교섭 구도에서 지방 정권의 입지를 확보하려 한 통치 전략의 일환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주제어: 성스차이, 신장, 항일 동원, 통치 공고화, 신장민중반제연합회, 지방 정권

I. 머리말

1937년 7월 루거우차오(蘆溝橋) 사건을 계기로 중일전쟁이 전면화하면서 중국은 전시 총동원 체제로 접어들었다. 국민정부는 항전을 국가적 과제로 내세우며 전 민족의 단결을 호소했고, 각지에서 모금 운동, 의용군 지원, 불매 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항전 양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일본에 대항하겠다는 열기는 중국 전역에 균질하지 않았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위협을 당했던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 온도 차가 분명했다. 만주사변으로 고향을 잃고 관내로 피신했던 두중위안(杜重遠)이 “동북 문제가 (다른 지역)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¹⁾

1) 杜毅·杜穎 主編, 1990, 『杜重遠文集』, 文彙出版社, 14쪽.

탄식한 후 항전 여론을 알리는 작업에 착수해야만 했던 것은 전쟁에 대한 여론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행보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중일전쟁 시기 전장과 멀리 떨어져 있던 신장(新疆)에서 전장의 '후방 기지'를 자처하면서 각종 반제 선전이 이루어졌다. 일본과의 전투가 벌어지지도, 점령의 직접적인 위협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장 중심지 디화(迪化)에서 발행한 『신장일보(新疆日報)』는 전선의 소식을 연일 보도했다.

당시 신장을 통치하고 있던 이는 성스차이(盛世才)였다. 성스차이는 연고가 없는 신장에 들어온 지 4년여 만에 신장에서 일어난 반란과 정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1933년 군권을 장악하고 신장 변방독판(邊防督辦)의 자리에 오른 뒤 일인 지배 체제를 구축했다. 그는 집권 초반부터 '반제(反帝)', 특히 항일을 통치의 핵심으로 내세웠는데 이것이 중일전쟁 이후 신장에서의 항전 열기로 이어진 것이었다. 그는 만주사변으로 실향한 라오닝성 출신으로 일본 유학을 통해 군사적 소양을 쌓은 인물이었다. 동향인 두중위안이 쓴 『성스차이와 신신강(盛世才與新新疆)』은 성스차이를 5·4운동 일어나자마자 일본 유학에서 돌아와 이른바 '애국 활동'을 열심히 했던 인물이라고 소개하였다.²⁾ 하지만 성스차이에 대한 당대의 평가는 물론 현재의 평가는 그와 다르다. 성스차이를 보통 '신장왕'이라는 별칭을 가진 신장 군벌, 독재자이자 신장을 소련에 넘기려 했던 매국노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³⁾ 이러한 성스차이의 이미지를 당시 신장에서의 정치적 항전 활동과 연결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중일전쟁기 신장에서의 항전 활동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기존의 연구에서는 1930년대 중반 내륙에서 건너온 중국공산당에 주목한다. 성스차이 집권기에 중국공산당의 인원들이 대거 신장으로 건너와서 다양한 활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바탕으로 중일전쟁 시기의 신장과 관련한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장의 항일 동원을 중국공산당의 사상 정치 공작의 성과로 귀결시키는 연구이다. 신장민중반제연합회·『신장일보』·교육기관을 중

2) 杜重遠, 1939, 『盛世才與新新疆』, 漢口生活書店出版, 31-32쪽.

3) 郎道衡, 1998, 「我所知道的“新疆王”盛世才」, 餘駿升 主編, 『新疆文史資料精選 第2輯 金樹仁和盛世才時期(1928-1944)』, 新疆人民出版社, 164쪽.

국공산당의 선전 채널로 분석하고 신장 각 민족의 항일 의식을 중공 간부들의 활동 결과로 설명한다.⁴⁾ 둘째, 중일전쟁 시기를 통해서 신장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형성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연구이다.⁵⁾ 이 역시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에 따른 결과로, 신장 내 소수민족이 함께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이 결과 중화민족 정체성이 발현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중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국제 협력 차원에서의 통로로서 신장에 주목하는 것이다.⁶⁾ 중일전쟁 시기 협력과 지원 차원에서 소련과 국민정부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북 국제 교통선과 군수물자 수송이 거론된 바 있다. 이 시각에서 신장은 수동적인 통로에 불과하며 신장성 정부의 역할은 시야 밖에 놓인다.

이 세 갈래로 정리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신장에서의 정책 결정자가 누구인지에 집중하지 않는다. 중국공산당의 활동이든, 중화민족 정체성의 형성이든, 국제 교통로의 개설이든, 이 모든 서술에서 성스차이는 중국공산당이 활동한 공간을 제공한 배경이거나 소련과 국민정부 사이의 수동적 매개자로 위치한다. 하지만 1933년 군권을 장악하고 국민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이후부터 1944년 그가 신장을 떠나 충칭으로 이동하기까지 약 11년 간 성스차이는 신장에

4) 대표적인 연구를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左紅衛, 2010, 「抗日戰爭時期新疆的演劇募捐和文化勞軍活動」, 『鄭州航空工業管理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29卷 第4期; 王曉斌·於雪玲, 2019, 「抗戰時期中國共產黨在新疆軍事人才的培養」, 『太原城市職業技術學院學報』第218期; 謝敏, 2021, 「抗日戰爭時期新疆各族人民愛國主義表現及現實意義」, 『新疆地方志』第3期; 陳鑫, 2022, 「抗日戰爭時期中國共產黨在新疆領導的劇運研究」, 『新疆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43卷 第4期; 李成, 2023, 「抗日戰爭時期中國共產黨在新疆的青年工作研究」, 新疆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伊力哈木江·吐爾遜, 2024, 「抗戰時期中國共產黨人在新疆的革命活動研究」, 新疆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張正泉, 2025, 「抗戰時期中國共產黨促進新疆各民族民眾支援抗日的歷史考察」, 『長春大學學報』 第35卷 第9期; 馬志芹·馮樂樂, 2026, 「抗日戰爭時期中國共產黨在新疆的民眾動員」, 『隴東學院學報』 第37卷 第1期.

5) 보통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형성과 관련한 연구는 1930년대 중국공산당의 신장 활동과 연결 짓는 경우가 많다. 앞선 연구와 겹치지 않은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趙海霞, 2022, 「抗戰時期中國共產黨對新疆各民族中華民族共同體意識的構築」, 『新疆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50卷 第4期; 張麗娟, 2023, 「抗日戰爭時期蘇聯軍事技術援華過程中的合作與沖突(1937-1945)——以新疆省為中心的考察」, 『中州大學學報』 第40卷 第3期.

6) 대표 연구 성과를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侯風雲, 2000, 「抗日戰爭時期的西北國際交通線」, 『江蘇社會科學』 第4期; 劉繼綽, 2005, 「論抗日戰爭時期新疆文化救亡運動的特點」, 『實事求是』 第5期; 張麗娟, 2023, 「抗日戰爭時期蘇聯軍事技術援華過程中的合作與沖突(1937-1945)——以新疆省為中心的考察」, 『中州大學學報』 第40卷 第3期.

서 가장 큰 권력을 누렸다. 1940년 성스차이는 4·12 정변 기념식장에서 “신장은 국민당의 세상도, 공산당의 세상도 아니다”라고 말할 만큼 자신의 권력을 자찬하였다. 이에 중일전쟁기 신장에서의 움직임은 성스차이의 의지와 결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명하기 어렵다. 신장의 항일 동원을 신장 밖에서 온 외부 세력의 기획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그 구조를 실제로 설계하고 운용한 주체를 지워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본고는 중일전쟁 시기의 신장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성스차이에 집중해보고자 한다. 성스차이는 동북 실향민 출신이며 신장에서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반체를 통치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그의 출신과 행보는 중일전쟁 시기 신장에서의 다양한 정치적 움직임의 동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고는 1935년부터 1941년까지를 분석 대상 시기로 삼는다. 코민테른의 반파시스트 통일전선 노선이 채택된 1935년부터 성스차이가 소련과 결별하기 직전인 1941년까지는 항일 프레임이 신장 통치의 정당성 기반으로 작동한 핵심 국면이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신장성 정부 지침은 성스차이가 직접 발행한 『6대정책교정(六大政策教程)』과 『정부목전주요임무(政府目前主要任務)』를, 중일전쟁기 대중 동원과 관련해서는 『항일전쟁시기신장각민족민중항일모금당안사료(抗日戰爭時期新疆各民族民眾抗日募捐檔案史料)』를, 소련의 외교 정책 중 신장과 관련한 내용은 『러시아해밀당안(俄國解密檔案: 新疆問題)』을 통해서 확인한다. 각 사료에는 활용상의 장단점이 있다. 『6대정책교정』과 『정부목전주요임무』는 당대의 정책 의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대내 선전용 문건으로서 통치 정당화를 위한 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항일전쟁시기신장각민족민중항일모금당안사료』는 실제 행정 문서를 수록한 당안 자료로서 지휘 계통과 동원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중국 측에서 편찬·선별한 자료집인만큼 수록 기준과 누락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해밀당안』은 당사국 간의 교섭 내용을 소련 측의 시각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7) 張大軍, 1980, 『新疆風暴七十年』 7, 蘭溪出版社, 356쪽.

독립적인 사료 가치를 지니지만, 신장성 정부나 국민정부의 입장이 소련 외교관의 해석을 거쳐 기록되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한편 본고에서는 중국공산당 측 서술 자료(『中共新疆地方史』 등)도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이 자료들은 해당 시기 신장에서의 활동에 관한 풍부한 사실 정보를 담고 있으나, 중국공산당의 역할을 전면에서 부각하고 성스차이를 수동적 매개자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어 사실 확인과 해석을 분리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성된 사료를 교차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중일전쟁 시기 신장에서의 항전 활동이 성스차이의 통치 공고화라는 맥락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II. 중국공산당원의 유입과 통치 기반 확충

1. ‘반제(反帝)’ 노선과 중국공산당원 수용

성스차이가 신장으로 간 1930년대는 온 중국이 전운에 감싸있던 시기였다. 밖으로는 일본의 침략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지역에는 내전 등이 벌어지고 있었다. 성스차이가 신장에 간 이유는 군인으로서 신장 내부에서 일어난 각양각색의 반란 및 전쟁을 진압하기 위함이었다.⁸⁾ 신장에 아무런 연고가 없던 동북 라오닝성 출신 성스차이가 서북 끝 신장으로 이동한 이유는 중국 내륙에 자신을 기용해 줄 적절한 지역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일찍이 성스차이는 일본에서 정치경제학을 공부하였다가 1915년 일본의 21개조 요구에 충격을 받고 항의의 표시로 집단 귀국을 결정하였다.⁹⁾ 그 후 그는 봉천군의 귀송링(郭松齡) 휘하에 있

8) 성스차이가 신장에 들어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이선희, 2023, 「新疆 집권 초기 盛世才의 권력기반 구축」, 『歷史學研究』 제92집, 239쪽 참고.

9) 이때 성스차이는 독대관(督隊官)으로 도쿄의 중국 유학생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고 유학생 대표로 중앙정부에 귀국할 것을 청원했다. 두중위안(杜重遠)이 1939년 저술한 『盛世才與新新疆』에서는 성스차이가 “의지가 박약한 어떤 유학생들이 자퇴하는 것을 꺼려하면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고 하였으며,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음에도 영웅이 지나가듯 위풍당당하게 걸어 다녔다”라고 묘사하고 있다(杜重遠, 1939, 『盛世才與新新疆』, 漢口生活書店出版, 31-32쪽).

다가 다시 일본 육군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1925년 귀쑹링이 상부에 반기를 든 후 봉천군의 지원이 끊기자 국민정부를 통해 유학 자금을 지원받았다. 성스차이가 귀국한 이후에는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¹⁰⁾ 국민혁명군에서 활동하였는데, 1931년 관동군이 만주 지역을 장악하고 만주사변을 일으키자 더욱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실항민이 된 성스차이에게 신장은 새로운 근거지가 되었고 일제의 침략에 맞서야 한다는 인식은 그의 통치 기조로 이어졌다.

성스차이가 표방한 6대 정책 속에 '반제(反帝)'가 핵심 항목으로 포함된 것은 성스차이의 출신과 이력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1936년 성스차이 신장성 정부는 6대 정책을 공식화하고 신장 통치의 핵심 키워드 6가지, 즉 친소(親蘇)·반제(反帝)·화평(和平)·청렴(清廉)·건설(建設)·민평(民平, 각 민족 일을 평등)을 발표하였다.¹¹⁾ 이 중 반제(反帝)는 일본제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미였다. 사실상 신장은 일제가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지역은 아니었다. 일본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정치적 구호는 신장과 소련과의 결탁을 더욱 강화하는 매개였다. 이는 영국, 일본제국주의를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소련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표현이기도 했기 때문이다.¹²⁾ 일본 역시 신장의 적화가 만몽(滿蒙)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신장의 동태를 예의주시했다.¹³⁾ 마중잉(馬仲英)의 군대에 일본인이 있었다는 사실은¹⁴⁾ 성스차이가 마중잉과의 권력 투쟁으로 맞설 때 여론 장악 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이러한 소문은 마중잉과 일본제국주의와의 관계를 연결 짓게 했기 때문이다. 성스차이의 집권과 그의 일본제국주의 반대 기조는 대내외적으로 일제가 점점 더 침략 야욕을 드러낼수록 정당성을 얻어갔다.

10) 장쑤린(張作霖)에 이어 만주 지역을 장악한 장쉐량(張學良)이 이른바 '동북역치(東北易幟)'를 행한 것은 1928년 12월의 일이다. 성스차이는 1927년에 일본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였다. 성스차이가 귀국할 때 여전히 만주 지역을 봉천군이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성스차이는 고향으로 갈 수 없었다. 장쉐량의 역치 전후 국민정부와의 관계를 확인하려면, 宋漢鏞, 2002, 『東北軍閥과 日本』, 서울: 서도문화사, 83-156쪽 참고.

11) 이선희, 2024, 「1930~1950년대 중국의 신장 인식과 정책」, 전남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35쪽.

12) 許建英, 2008, 『民國時期英國與中國新疆(1912-1949)』,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58쪽.

13) 櫻井良樹, 2014, 「新疆と近代日本との関係史スケッチ」, 『中國研究』(22), 79-78쪽.

14) 王柯, 2013, 『東突厥斯坦獨立運動: 1930年代至1940年代』,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62쪽.

1935년 7월 코민테른은 제7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여 세계 반파시스트 통일 전선 건설 방침을 제시하였다. 코민테른은 중국에 대해서 내전을 중지하고 항일 민족통일전선을 수립하자고 하였다. 이것은 성스차이가 신장을 안정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는 데 매우 유리했다. 시안사변이 일어나기 전인 1936년 봄, 중국공산당은 장쉐량(張學良)과 양후청(楊虎城) 등 지방 실력자들과 항일민족통일전선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소련의 원조를 얻고자 장쉐량은 곧 난상천(南向枕)과 동페이칭(董佩卿)을 파견하여 신장에 와서 성스차이와 연락하였다.¹⁵⁾ 1936년 6월 장정 중인 홍군이 산시성(陝西省) 북부에 이르자 중국공산당 중앙은 덩파(鄧發)를 모스크바에 파견했다. 덩파는 11월 신장에 도착해서 그 후 모스크바로 갔는데, 그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산시성 북부에 도착한 후 신장을 거쳐 소련으로 파견한 최초의 대표였다.¹⁶⁾ 이를 두고 중국공산당은 “중국공산당 중앙과 성스차이 간의 첫 번째 접촉”이라 묘사하고 있다.¹⁷⁾

하지만 성스차이는 중국공산당과의 접촉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항일을 촉구하는 장쉐량을 지지하는 것일 뿐, 국민정부의 지도자를 교체하거나 내부의 정치 변화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항일 여론을 활용하여 신장 내에서의 권력을 강화하고 주변 지역의 유력자들 사이에서도 영향력을 활용하는 데 그쳤던 것이고 직접적으로 국민정부와 대치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시안사변이 일어나자 1936년 12월 18일 성스차이는 즉각 몽장위원회 쪽에 장쉐량과 양후청의 행동과 자신은 무관함을 알렸다.¹⁸⁾ 1937년 3월 17일에 직접 장제스에게 위로하는 전보를 보내기도 했다.¹⁹⁾ 자신이 중국공산당과의 관계가 있음을

15) 장쉐량과 성스차이의 관계는 성스차이가 봉천군에 있을 때부터 시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국민당 군사위원회 참모본부 제2처 처장이었던 자오지화(焦續華)의 기록에 주목할 수 있다. 자오지화는 1936년 초 장쉐량과 소련대사와 비밀리에 만나는 자리에 동석해서 장쉐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다. “성스차이는 일찍이 그의 부관(副官)이었으므로 만일 일이 생기면 돌보아 줄 것입니다(焦續華, 1986, 「張學良與蘇使秘密會晤」, 『西安事變親曆記』, 中國文史出版社, 10쪽).”

16) 陳超, 1998, 「新疆抗日民族統一戰線的建立和中國共產黨人在新疆的出色工作」, 『烏魯木齊職業大學學報』 第7卷 第3, 4期, 30쪽

17) 王晉林·秦生, 2007, 『挽救民族的危亡: 西北抗日救亡史』,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148쪽.

18) 朱文原 編, 1993, 『西安事變史料』 第一冊 重要函電(上), 臺北: 國史館印行, 248쪽.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1949년 이후 국민정부를 따라 대만으로 건너간 이후 그가 쓴 회고록에도 나타나 있다. 성스차이는 평샤오셴(彭昭賢)이 자신을 두고 한 여러 평가에 대해 “나의 가족 중에 공산당원은 한 명도 없으며,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 “비적 소탕과 항일 국책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친소’를 선택했다”라고 해명했다.²⁰⁾ 물론 이것은 그가 신장을 떠난 지 아주 오래된 이후의 기록으로, 사후적 자기합리화에 기반한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주목할 점은 그가 친소 노선이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자신이 설계한 통치 기제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중국공산당 간부의 신장 유입 역시 이들의 주도적 침투가 아니라 성스차이가 통치의 필요에 따라 기획하고 통제한 것이었음을 제기할 수 있다.

1937년 상황을 살펴보면 성스차이 신장성 정부보다 중국공산당이 신장을 더 필요로 했다. 코민테른과 중국공산당은 소련을 거치는 국제 통로로서 신장을 위치 짓고 싶어 했다. 중국공산당은 더욱 안전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소련과 코민테른에 지원받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국민정부군의 군사 포위와 경제봉쇄를 타파하는 공간으로서 신장을 활용하고 전 민족의 항일전쟁을 발전시키겠다고 구상하고 있었다. 사실 중국공산당은 장정이 끝난 이후로도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1936년 11월, 서로군(西路軍)이 소련과의 길을 뚫기 위해서 진군하던 중 칭하이(青海)의 마부팡(馬步芳)과의 전투로 상당한 전력을 잃었다. 이에 1937년 3월, 서로군 군정위원회는 천여 명을 좌지대(左支隊)로 편성하였고, 4월 7일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와 군사위 주석단으로부터 “신장으로 가서 도움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²¹⁾ 서로군 좌지대는 패전하고서 후퇴하는 군대였던 터라 전군이 매우 심신이 지치고 피곤한 상황이었는데 성스차이는 싱싱사판사처(星星峽辦事處) 주임 겸 싱싱샤 변경 검문소(星星峽邊卡) 대대장(大隊長) 왕샤오톈(王效典)을 보내

19) 呂芳上 主編, 2014, 『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五冊, 臺北: 國史館·國立中正紀念堂管理處·財團法人中正文教基金會, 259쪽.

20) 彭昭賢·盛世才 原著, 蔡登山 編, 2014, 『彭昭賢·盛世才回憶錄合編』, 臺北: 獨立作家, 310-311쪽.

21)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1999, 『中共新疆地方史(1937年-1966年)』, 新疆人民出版社, 34쪽.

그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의복, 식품,약품, 무기 등을 상싱샤로 보내서 서로 군 좌지대 간부 407명을 접대하였다.²²⁾ 홍군 중군기자였던 류빙룡(劉秉榮)의 기록에서 성스차이가 표리부동한 목적에서 접근했다는 등의 부정적인 묘사로 표현되어 있으나,²³⁾ 이 기록에서 성스차이가 직접 홍군 패잔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1937년 4월 하순 천원(陳雲), 텡다이위안(滕代遠) 등은 독판공서 변무처 부처장 천페이성(陳培生)의 안내로 성스차이와 디화에서 만났다.²⁴⁾ 9월에 이르러서는 천원과 성스차이는 소련이 성스차이 군대에 현대화 무기와 장비를 공급하고 '신병영(新兵營)'을 훈련하여 다양한 병종의 군사 인재를 양성할 것에 합의하였다. 9월 하순 중국공산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텡파(신장에서 사용한 가명은 方林)는 당 중앙의 지시를 받아 모스크바에서 디화로 돌아와 천원의 뒤를 이었다. 1937년 11월 하순 왕밍(王明)과 부단장인 강성(康生)은 모스크바에서 옌안(延安)으로 돌아가기 전 디화에 머물 때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성스차이는 이때 왕밍에게 신장으로 중국공산당 간부를 파견할 것을 요구했다. 1938년 1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텡파를 신장 주재 중국공산당 중앙대표로 공식 임명하고 '신병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1938년 마오쩌민(毛澤民), 린지루(林基路)가 신장에 도착하였고 1939년에는 텡파에 이어 당 중앙위원 천탄추(陳潭秋)가 제3대 신장 대표를 맡도록 했다.²⁵⁾

중국공산당은 이 시기를 다루는 대부분의 기록물을 통해 신장에 들어온 이후 성스차이와 함께 항일민족통일전선을 수립했다고 하면서 6대정책의 성립을 중국공산당의 첫 번째 과업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성스차이의 신장 정책에서 중국공산당의 역할이 일방적인 것은 아니었다. 당시 중국공산당의 상황은 매우 위

22) 劉秉榮, 1991, 『西路軍魂』, 群眾出版社, 251쪽;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1999, 『中共新疆地方史(1937年-1966年)』, 新疆人民出版社, 34쪽.

23) 劉秉榮, 1991, 『西路軍魂』, 群眾出版社, 254쪽.

24) 新疆維吾爾自治區黨史委員會編, 1985, 『新民主主義革命時期中國共產黨在新疆鬥爭紀事(1933-1949)』, 蘭州: 解放軍出版社, 8쪽.

25) 중국공산당 주 신장 대표 1대는 천원, 2대는 텡파, 3대가 천탄추였다. 천원은 1937년, 텡파는 1939년에 옌안으로 돌아갔지만 천탄추는 1942년 9월 성스차이에 의해 체포된 이후에 1943년 9월 비밀리에 처형되었다.

태롭고 힘겨운 상황이었다. 1년여에 달하는 장정을 끝마치고 근거지의 안정을 찾기도 전에, 장귀타오(張國燾)를 비롯한 당내 내분을 처리하는 문제로 복잡했을 뿐만 아니라 마부팡 등의 공격으로 인한 상당한 전력을 잃은 상황이었다. 소련과의 연결은 막혀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은 어떻게든 그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고심해야 했고 그때 마주한 것이 신장이었다. 성스차이의 신장성 정부가 중국공산당의 인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중국공산당 역시 신장이라는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1938년부터 중국공산당 당원이 신장에 와서 일하기 시작했던 것도 성스차이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련에 갔다가 귀국하는 길에 신장을 거쳐 가려 한 간부나 아니면 곧바로 연안에서 차출해 온 사람들이었다.²⁶⁾ 중국공산당이 신장에 파견한 간부들은 대부분 신장의 지방정부 관료나 공무원으로 군부대, 성(省)의 각 기관 및 각 행정구와 현(縣)급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였다. 신장 주재 중국공산당 대표와 팔로군주신장판사처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신장 중국공산당 대표가 성스차이에게 추천한 인물들로 채워졌으며, 이들은 교육·재정·언론 부문의 실무직에 배치되어 성스차이에 의해 임명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6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통치 구조를 설계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중국공산당은 이 시기 중국공산당원들의 활약으로 신장이 제국주의의 수중에 함락되지 않고 중국의 영토로 유지되었다고²⁷⁾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성스차이가 기획하고 통제할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2. 신장민중반제연합회 조직과 통치 기제

성스차이는 신장에 들어온 지 불과 4년 만에 신장 내부 반란과 정변 등 여러 세력이 각축을 벌이는 와중에 소련의 지원과 신장 변방독판(邊防督辦)의 직위에 힘입어 정권을 차지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공고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

26)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1996, 『20世紀30年代共產國際蘇聯在新疆的活動』, 烏魯木齊: 新疆大學出版社出版, 11쪽.

27) 王晉林·秦生, 2007, 『挽救民族的危亡: 西北抗日救亡史』,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155쪽.

고 있었고 이에 집권 초반부터 특무기구를 두어 전임 양정신(楊增新)과 진수린(金樹仁)처럼 언젠든 정변에 의해 끌어내려질 것을 대비했다.²⁸⁾ 성스차이는 공식 행정 조직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장악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두는 방식을 선호했다. 성스차이는 1934년 '신장민중반제연합회(이하 반제회)'를 설립하였는데, 이 조직은 신장성 정부 정책을 실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성스차이가 직접 통제하는 사조직의 성격을 띠었다.²⁹⁾ 장다권(張大軍)은 반제회를 "가히 성스차이의 당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6대정책의 당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³⁰⁾

성립 초반 반제회는 성스차이와 동향인 자들로 채워졌으나, 소련 등의 압박을 받아 여러 차례 개편되었다. 1938년 초 반제회의 2차 개편 때 중국공산당원 황휘칭(黃火青)이 '신병영'에서 반제회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겨 반제회 지도 작업에 참여했고, 신장에서 활동하는 중국공산당원 상당수가 반제회에 가입했다. 중국공산당 측 서술은 이로써 반제회 안에서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영향이 강해지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황휘칭의 이동은 중국공산당 중앙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제회 회장직을 겸임한 성스차이가 신병영 인력을 반제회로 전보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신병영은 소련이 성스차이 군대의 현대화를 위해 설치한 훈련 기관으로, 그 운영권은 성스차이에게 귀속되어 있었다. 반제회 역시 성스차이가 회장직을 직접 겸임한 조직이었다. 두 조직 모두 성스차이의 관할 아래 있었던 만큼, 그 사이의 인력 이동은 성스차이의 인사 결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중국공산당 중앙이 독자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1939년 수정 통과된 「반제회 정관」에서는 "본회는 전 신장 각계각층의 민중 자발적인 민중 정치 조직"이라고 규정하였으며, 그 취지는 6대정책에 따라 신장 인민을 호소하여 "제국주의, 특히 일제의 중국에 대한 침략을 단호히 반대하

28) 이선희, 2024, 「1930~1950년대 중국의 신장 인식과 정책」, 전남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73쪽.

29) 이선희, 2023, 「新疆 집권 초기 盛世才의 권력기반 구축」, 『歷史學研究』 제92집, 254쪽.

30) 張大軍, 1980, 『新疆風暴七十年』 7, 蘭溪出版社, 3568쪽.

고, 중국의 영토를 유지하며, 특히 신장을 중국의 영토로 영구히 유지한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정관의 제2조, 제3조에서 “신장 현 정부를 옹호하고”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³¹⁾ ‘자발적 민중 정치 조직’을 표방하면서도 ‘신장 현 정부 옹호’를 설립 목적으로 둔 것은 반제회가 성스차이 신장성 정부의 집행 기관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

반제회의 조직 편제는 신장성 정부 행정 계통을 그대로 동원 구조로 전환한 것이었다. 1940년 반제회 디화시 분회 편제를 확인해보면,³²⁾ 건설청·재정청·운수국·지방세국·지방법원 등 신장성 정부 각 행정·군사 기관이 그대로 분회 단위가 되고 있다. 반제회와 더불어 1937년 설립된 신장민중항일구국후원회(新疆民衆抗日救國後援會, 이하 후원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후원회 각급 분회 조직기구표에 따르면,³³⁾ 제1구회 분회들이 민정청·교육청·건설청 등 신장성 정부 각 청(廳)에 대응하고, 제2구회 분회들이 신장성 정부의 재정청·지방세국에 대응한다. 신장성 정부 기관이 분회의 단위가 된다는 것은 이 조직이 신장성 정부 행정망을 그대로 동원 구조로 전환한 것임을 보여준다. 반제회와 후원회 동원 조직이 독자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신장성 정부의 관료 체계 위에 덧씌워진 구조였음을 보여준다.

반제회가 성스차이 직할 조직이었음은 중일전쟁 시기 항일 모금 당안 사료(『抗日戰爭時期新疆各民族民衆抗日募捐檔案史料』)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942년 11월 4일 신장성 정부는 반제회에 훈령을 내려 “각 문화회가 계속 모금 활동을 전개하도록

31) 張大軍, 1980, 『新疆風暴七十年』 7, 蘭溪出版社, 3572-3574쪽.

32) 1940년 2월 『신장일보』에 보도된 “디화시 일대 각 구 분회가 반제총회에 보고한 입학 민중”에 대한 기사로 신장민중반제연합회 디화시 분회 편제를 추측하면 다음과 같다. 직속분회로는 건설청(建廳), 운수국(運輸局), 제2구 분회에는 재정청(財政廳), 제3구 분회에는 지방세국(地方稅局), 지방법원(地方法院) 재감회(財監會), 한문회(漢文會) 제4구 분회에는 위문회(維文會), 제5구 분회에는 전등공사(電燈公司), 상인분회에는 상인회(工商會), 군직분회(兵工廠) 등으로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迪化市各區分會一九四〇年二月反帝總會入學民衆統計」, 『新疆日報』, 民國二十九年(1940) 二月六日, 第三版(尙中, 「新疆民衆反帝聯合會研究」, 新疆大學 碩士研究生學位論文, 2013, 33쪽에서 재인용) 참고.

33) 직속분회에는 반제총회, 신장학원, 성립일중, 성립사범, 여자중학이 들어가 있고, 직속공인분회에는 신장일보사(新疆日報社)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新疆民衆抗日救國後援會各級分會組織機構表」, 新疆維吾爾自治區檔案局·中國社會科學院邊疆史地研究中心, 『新疆通史』編撰委員會 編, 2008, 『抗日戰爭時期新疆各民族民衆抗日募捐檔案史料』,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25-128쪽).

독려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반제회는 11월 10일 반제회 회장 성스차이에게 각 구분회를 동원한 모금 활동의 가부를 청원하였고, 성스차이는 11월 25일 직접 “각 구분회는 회원에게 한정하여 모금하되 외부 모금은 불필요하다”라고 비준하였다.³⁴⁾ 항일 모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지휘 계통이다. 신장성 정부가 반제회에 지시하면, 반제회가 각 구분회로 명령을 하달하는 구조였고, 반제회의 활동 범위와 방식은 반제회 회장 성스차이가 직접 결재하고 처리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제회는 성스차이가 회장직을 겸임한 조직으로 독자적 강령을 가진 민중 단체가 아니라 신장성 정부 행정 계통의 연장선에서 기능하였다. 중국공산당 駐신장 3대 대표 천탄추는 반제회를 “6대정책에 기반을 둔 정치조직”으로 규정하고, “6대정책을 홍보하고 집행하며 공고히 하는 것이 신장 공산주의자들의 중심 임무”라고 한 것은,³⁵⁾ 역설적으로 반제회의 활동 준거가 성스차이의 6대정책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다원은 1938년 성스차이가 “소련을 따라 반파시즘 구호를 함께 외치다가 중국공산당의 항일민족통일전선에 호응하면서도 국민정부의 항전건설강령을 옹호하였다”며 갈팡질팡했다고 평가하였다.³⁶⁾ 중국공산당은 역시 당시 성스차이는 신장의 혼란한 국면을 안정시키고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진보적인 행세를 하면서 중국공산당의 지원을 받고자 했으며 “6대정책은 중국공산당의 힘을 빌려 완성한 것”이라고 하였다.³⁷⁾ 국민정부나 중국공산당 양측 모두 성스차이를 외부 세력의 주장에 휩쓸린 수동적 행위자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달리 읽으면, 성스차이는 어느 세력의 논리도 자신의 기준에서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성스차이가 “항전건설강령과 항일민족통일전선이 현재 중국의

34) 「省政府就各文化會應繼續發動文化勞軍運動事給反帝會的訓令(1942年 11月 4日)」; 「反帝會爲文化勞軍募捐事致會長盛世才的請示及會長的批示(1942年 11月 10日)」, 新疆維吾爾自治區檔案局·中國社會科學院邊疆史地研究中心·『新疆通史』編撰委員會 編, 2008, 『抗日戰爭時期新疆各民族民衆抗日募捐檔案史料』,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73쪽.

35) 이선희, 2024, 앞의 논문, 51쪽.

36) 張大軍, 1980, 『新疆風暴七十年』 7, 蘭溪出版社, 3941쪽.

37)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1999, 『中共新疆地方史(1937年-1966年)』, 新疆人民出版社, 34쪽.

객관적인 정세에 적응하는 유일하고 정확한 전략과 책략이다”라고 한 것은,³⁸⁾ 국민정부의 강령과 중국공산당의 노선을 모두 ‘항일’이라는 자신의 기준 아래 포섭하는 것이었다.

성스차이의 ‘항일’에 대한 기준은 구체화 된 통치 정책에도 드러난다. 성스차이는 신장 제3차 전민대표대회 정치보고에서 “6대정책 정권 수립 이후 5년간의 투쟁 과정이 6대정책 정권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신장이 거둔 성과를 “6대 정책의 승리, 특히 반제·친소·민평 3대 정책의 승리”, “6대정책 정권의 공고화”, “민족 간 단결 역량의 강화와 항전 후방의 공고화”로 열거하였다.³⁹⁾ 성스차이는 향후 과제로 “전선 항전의 승리”와 “항일민족통일전선의 공고한 확대 및 항전 건국 임무의 완성”을 강조하였다.⁴⁰⁾ 항전 후방 건설과 6대 정책 정권 공고화가 동일한 성과로, 항일과 건국이 동일한 과제로 묶여 있다는 것은, 성스차이의 정책 방향이 ‘항일’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1940년 11월 신장성 설계위원회가 편찬한 『신장 제2기 3년 계획(新疆二期三年計劃)』은 민정·재정·교육·농업·목축업·공업·교통을 망라하는 종합 통치 기획서로, 그 서언에서 이 계획이 “국방 민생의 위대한 계획”이자 “신신장(新新疆) 건설의 제2층 전기석(奠基石)”임을 밝히고 있다.⁴¹⁾ 교통 계획 면에서 “변강으로서 교통 운수는 반드시 항전 승리의 후방이 되어야 하며, 국제 교통의 중요한 공도(孔道)로서……6대정책 건설의 승리로 인해 신장의 교통 운수 공작은 더욱 진전되고 더욱 크게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⁴²⁾

성스차이의 ‘반제’ 즉 ‘반일’ 노선은 중국공산당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었다. 중국공산당은 신장에 들어오고 반제회에 들어가서 비로소 신장의 발전을 꾀하고 신장 인민에게 중화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반제회의 성립 경위, 반제회 정관 내용, 반제회의 조직 편제, 지휘 계통 등을 고려해

38) 張大軍, 1980, 『新疆風暴七十年』 7, 蘭溪出版社, 3941-3942쪽.

39) 盛世才 著, 1941, 『政府目前主要任務』, 迪化: 新疆民衆反帝聯合會出版, 67쪽.

40) 盛世才 著, 1941, 『政府目前主要任務』, 迪化: 新疆民衆反帝聯合會出版, 72쪽.

41) 新疆二期三年計劃設計委員會 編, 1941, 『新疆二期三年計劃』, 迪化: 新疆日報社印, 代序.

42) 新疆二期三年計劃設計委員會 編, 1941, 『新疆二期三年計劃』, 迪化: 新疆日報社印, 緒言, 95쪽.

보았을 때, 반제회는 성스차이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성스차이가 기획하고 통제하는 통치 집행 조직이자 신장성 정부 정책의 보조기관으로 자리했다. 만주 사변으로 고향을 잃은 실항민이자 일본 유학 시절부터 반일 감정을 드러냈던 이력이 있는 성스차이가 신장에서 '반제'를 내걸고 통치를 하게 된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의 개인적 경험이 성스차이 신장성 정부의 '반제' 노선의 실질적인 토대인 것이다. 성스차이의 항일과 신장 통치의 구체적인 목표는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이 목표에 따라서 성스차이는 반제회를 이용해 대중을 동원하면서 신장 인민을 전시 동원 체제로 편입시킬 수 있었다. 또한 중소 교섭의 지정학적 거점으로 신장을 위치시키려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I. '항일 후방 기지' 구축과 대중 동원

1. 항일 여론 조성 and 선전 활동

성스차이는 신장을 후방 기지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에 돌입하였다. 신장 내에서 전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제회를 동원하여 전쟁 분위기를 끌어내고자 했다. 1936년 10월 15일 반제회는 제17차 간사회(幹事會)에서 회원들에게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벌일 것을 결정하였다. 여기에서 일본제품 상표 및 견본을 보여주면서 신장 민중들이 일본제품 불매를 쉽게 할 수 있게 6가지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신장 각 민중이 일본제품을 사지 않고 항일 구망의 결의를 다지도록 하자고 결정하였다. 불매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신장 내에 일본제품이 상당히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찍이 국민정부 참모본부는 신장 주재 일본 외교 대표단이 신장 내 일본제품 판로 확장 방법을 검토하고 신장 지역 소련 대표의 행동을 조사하는 활동을 진행한다고 몽장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⁴³⁾

항일 동원이 본격화된 계기는 1936년 8월 11일 일제의 내몽골 쑨이위안(綏遠) 침공이었다. 쑨이위안 항전(綏遠抗戰)으로 말미암아 전국 각지에서 원조 모금 활동이 전개되었는데, 신장에도 반제회의 지도하에 모금 활동 열풍이 불었다. 1936년 12월 3일 반제총회 각부 연석판공회(反帝總會各部聯席辦公會)는 왕서우청(王壽成, 본명 위슈쑹(俞秀松))의 주도로 쑨이위안 항일군에 대한 성금 지원 결의를 채택하였다. 『신장일보』는 5일 「쑨이위안 전선 전사를 위로하기 위한 기부금(捐款慰勞綏遠前線戰士)」라는 사실을 실었다. 반제회는 쑨이위안 사건 보고회를 개최하여 왕서우청, 장이판(張逸凡), 자오스(趙實), 부르한(包爾漢) 등이 기초 선전 대강을 작성하였다. 또한 반제회는 강연팀과 연극팀을 조직하여 거리마다 다니며 각 민족에게 쑨이위안 사건을 널리 알리고 각 민족의 적극적인 기부를 호소하였다. 신장의 모든 민족이 잇달아 돈을 기부하여 반제회는 총 4,424만 냥(구 신장성 화폐) 이상의 기부금을 받았다.⁴⁴⁾

이 시기 모금 활동의 지휘 계통은 당안 사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1936년 12월 16일 이리(伊犁) 지역에서 쑨이위안 항일 모금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설립했다고 보고하자, 신장성 정부는 제212차 회의 결의로 이를 정식 비준하였다.⁴⁵⁾ 같은 달 30일에는 반제회 비서장 왕서우청의 요청으로 신장성 정부가 교육청에 훈령을 내려 12월분 이틀 치 월급을 기부하도록 하였으며, 교육청이 이를 이행하고 성립 디화 각급 학교에도 같은 지시를 내려 모금액을 반제회에 납부하였다.⁴⁶⁾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왕서우청이 공산당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에서 그는 신장성 정부의 훈령을 받아 집행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반제회

43) 「參謀本部抄送日本駐新疆外交代表團之任務致輩藏委員會通報(1936年 7月 7日)」, 中國第二歷史檔案館編, 1998,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第五輯 第二編 政治(四), 鳳凰出版社, 766쪽.

44)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編, 1996, 『20世紀30年代共產國際蘇聯在新疆的活動』, 烏魯木齊: 新疆大學出版社出版, 12-13쪽.

45) 「伊犁區爲成立民衆募捐委員會事致督辦公署等的電(1936年 12月 16日)」, 新疆維吾爾自治區檔案局·中國社會科學院邊疆史地研究中心·『新疆通史』編撰委員會編, 2008, 『抗日戰爭時期新疆各民族民衆抗日募捐檔案史料』,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3쪽.

46) 「教育廳爲該廳職員自願捐出二日薪水慰勞綏遠抗日將士事致省政府的呈及省政府的指令(1936年 12月 30日)」, 新疆維吾爾自治區檔案局·中國社會科學院邊疆史地研究中心·『新疆通史』編撰委員會編, 2008, 『抗日戰爭時期新疆各民族民衆抗日募捐檔案史料』,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4쪽.

비서장 직책 자체가 성 정부 지휘 계통 안에 편입된 집행직이었던 것이다. 1937년 2월에는 『신장일보』 전체 직원 58명이 이틀 치 월급을 기부하였는데, 신장성 정부 지령이 내려온 뒤 반제회 비서처로 납부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⁴⁷⁾ 직원 명단에는 위구르족·카자흐족 이름이 절반 가까이 포함되어 있어, 전시 동원이 특정 민족에 국한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쑤이위안 항전을 계기로 시작된 모금 활동은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더욱 확대되고 제도화되었다. 1937년 3월 아커수구(阿克蘇) 지역 8개 현이 모금액 1,233만여 냥을 신장성 정부·독판공서·반제회에 보고하고 은행으로 송금한 것에서,⁴⁸⁾ 독판공서가 각 구에 지시하고 각 구가 현 단위로 하달하며 다시 신장성 정부에 보고하는 행정 소통의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해 9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재정청·신장성 은행·소련 주재 영사관·소련 유학생까지 모금에 동원되었다. 신장성 은행의 기숙사 건축 준비금과 도서관입비 전용金は 독판 성스차이 명의로 신장성 정부에 조회되고 신장성 정부 제281차 위원회의 결의로 비준되었으며,⁴⁹⁾ 소련 유학생의 한 달 치 지원금 기부 역시 독판 성스차이가 재정청을 통해 반제회로 이체하도록 직접 지시하였다.⁵⁰⁾ 항일 모금은 민간에서의 자발적 결과가 아니라 신장성 정부 소속 기관 전체를 포괄하는 조직적 동원이었으며, 지금은 반제회 수납, 은행 송금, 내지(관저우·충칭 방면) 순으로 실제 전선에 전달되었다.

1937년 9월 자오스는 신장항일구국후원회를 만들어 반제회 조직이 없는 남신

47) 「新疆日報社爲該社公務員自願捐出二日薪水慰勞綏遠抗日將士事致省政府的呈及省政府的指令(1937年 2月 26日)」, 新疆維吾爾自治區檔案局·中國社會科學院邊疆史地研究中心·『新疆通史』編撰委員會 編, 2008, 『抗日戰爭時期新疆各民族民衆抗日募捐檔案史料』,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5쪽.

48) 「阿克蘇區爲報區屬八縣抗日捐款數目事致督辦公署等的電(1937年 3月 26日)」, 新疆維吾爾自治區檔案局·中國社會科學院邊疆史地研究中心·『新疆通史』編撰委員會 編, 2008, 『抗日戰爭時期新疆各民族民衆抗日募捐檔案史料』,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8쪽.

49) 「督辦公署爲省銀行擬將建修宿舍準備金及俱樂部購書款捐作抗日捐款事致省政府的咨(1937年 10月 11日)」, 新疆維吾爾自治區檔案局·中國社會科學院邊疆史地研究中心·『新疆通史』編撰委員會 編, 2008, 『抗日戰爭時期新疆各民族民衆抗日募捐檔案史料』,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0쪽.

50) 「督辦公署就留學生捐出一月津貼支援抗戰事給省政府等的代電(1937年 10月 25日)」, 新疆維吾爾自治區檔案局·中國社會科學院邊疆史地研究中心·『新疆通史』編撰委員會 編, 2008, 『抗日戰爭時期新疆各民族民衆抗日募捐檔案史料』,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4쪽.

장 각 지역에까지 후원회를 확대하였다. 1937년 말 후원회는 규모가 확대되어 디화에 총회를 두고 특별구에 지회를 설립했으며 다른 10개 이상의 현에도 지회를 설립했다. 이 밖에도 노동계에서 노동자구국연합회가, 상공업계·학계·여성계에도 항일 단체 및 구국 단체가 잇달아 결성되었다. 1938년 11월 반제회는 헌금운동위원회(獻金運動委員會)를 설립하여 신장 전역에 헌금대를 설치하였다. 이 돈으로 전투기 10대를 구매하여 '신장호(新疆號)'로 명명하고 1939년 8월 우한(武漢) 항일 선전으로 보냈다. 1936년 겨울 쑨이위안 항전을 위한 모금을 시작으로 1943년 '문화노군(文化勞軍)' 모금 장려 운동까지 8년 항전 내내 진행되었다. 규모가 큰 것은 1938년 초 항일 모금, 1938년 정부 기관 공무원의 자발적 기부, 철 모으기 운동, 제1차 방독면 기부 모금 운동, 7·7 모금 활동, 제2차 방독면 기부 모금 운동, 겨울옷 모집 운동, 1941년 소련 홍군 위로 모금 활동과 1943년 기계 기부 운동, 말 헌납(獻馬) 활동 등 10여 차례에 달했다.⁵¹⁾

모금 운동의 구체적인 양상은 첸더현(乾德縣)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1938년 반제회는 두 차례 선전대를 첸더현으로 보내서 항일 선전 활동을 진행하였다. 반제회의 선전을 받은 첸더현 인민들은 신장 제3차 민중대회에서 제기한 "성금을 모아 전투기 10대를 기증하여 항전하자"는 결정에 적극 호응하였고, 썬다오바(三道壩)·구무디(古牧地)·장산쯔(長山子) 등지에 '헌금대(獻金台)'를 설립하였다. 부녀협회의 협조로 각 민족 부녀자가 측석에서 금·은 장신구를 기부하였고, 세바오궁촌(協標工村)의 후이족(回族) 인민은 차에 쌀을 가득 싣고 와 기부하고 돌아갔다. 내부자의 회고에 따르면 첸더현은 신장에서 가장 성금 성과가 탁월한 현이었으며, '신장호(신장의 전투기)'의 10대를 첸더현의 성금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⁵²⁾ 이처럼 반제회는 청년들을 동원하여 각지를 직접 방문하며 선전 활동을 벌였고, 1938년부터 매년 학교 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조직해 남·북신장 각지로 나누어 항일 구국사상을 선전하였다.⁵³⁾

51) 王晉林·秦生, 2007, 『挽救民族的危亡: 西北抗日救亡史』,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151쪽.

52)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新疆米泉縣委員會文史資料委員會編, 1990, 「民國時期乾德縣的群眾組織」, 『米泉文史』第2輯, 米泉印刷廠, 199쪽.

첸더현 사례는 당안 사료로도 뒷받침된다. 1938년 8월 첸더현 현장 천홍모(陳宏模)는 매년 음력 8월에 열리는 전답 추수 감사 연극 관행을 항일 모금 기회로 전환하겠다고 신장성 정부에 보고하고 비준을 요청하였다. “연극이 끝날 때 정부 정책을 선전하고 항일 모금을 진행하여 전방 장병을 지원하고 후방 민중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라는 것이었다.⁵⁴⁾ 이듬해 1939년 3월에는 독공공사·신장성 정부의 통령을 받들어 분회를 조직하고 선전고(宣傳股)·모집고(募集股)·수금고(收款股) 세 부서를 갖추어 겨울옷 모집을 진행하였다. 당시 참가 민중이 약 5~6백 명이었고 즉석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은 2,067만여 냥을 확보하였으며, 모금액은 항일구국후원총회를 통해 전선으로 송금되었다.⁵⁵⁾ 민간 문화 행사를 신장성 정부 지시에 따른 항일 동원 도구로 전환하는 이 구조는 첸더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선전 활동은 학교와 공식 기관을 통해서도 전개되었다. 옌레이구(焉雷區) 행정장관공서는 훈령을 내려 아동을 후방 기지 위문사업에 참여시키고 민족의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항전 관련 글을 읽고 글짓기를 하도록 하였다.⁵⁶⁾ 옌잉구(焉營區)에서도 각 소학교에 훈령을 내려 항전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기부금 액수에 따라 이름을 게시하거나 포상하는 방식으로 경쟁심을 유발하였다.⁵⁷⁾ 1940년 반제회 사무총장 왕바오간은 귀향 선전대원들에게 “마르크스주의, 항일전쟁 정세, 정부의 정책을 농촌과 목축지로 가서 홍보하라”고 지시하였고, 1941년에는 700명 이상의 여름 농촌 선전팀을 조직하여 46개 현으로 나누어 선전 활동을 펼

53) 王晉林·秦生, 2007, 『挽救民族的危亡: 西北抗日救亡史』,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54) 「乾德縣爲利用秋季會戲之際進行抗日募捐事致省政府的呈(1938年 8月 8日)」, 新疆維吾爾自治區檔案局·中國社會科學院邊疆史地研究中心·『新疆通史』編撰委員會 編, 2008, 『抗日戰爭時期新疆各民族民衆抗日募捐檔案史料』,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73쪽.

55) 「乾德縣爲實繳寒衣捐款日事致省政府的呈(1939年 3月 23日)」; 「乾德縣爲組織募寒分會開展募捐活動及收到捐款數目事致省政府的呈(1939年 3月 24日)」, 新疆維吾爾自治區檔案局·中國社會科學院邊疆史地研究中心·『新疆通史』編撰委員會 編, 2008, 『抗日戰爭時期新疆各民族民衆抗日募捐檔案史料』,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45-146쪽.

56) 「於行政長就開展兒童慰問抗戰將士活動致王校長的令(1938年 9月 26日)」, 吐娜 主編, 2012, 『民國新疆焉耆地區蒙古族檔案選編(『新疆通史』研究叢書)』,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33쪽.

57) 「於行政長致王校長關於募集寒衣的訓令(1938年 11月 29日)」, 吐娜 主編, 2012, 『民國新疆焉耆地區蒙古族檔案選編(『新疆通史』研究叢書)』,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35쪽.

쳤다. 선전 내용은 항일뿐 아니라 건국·문맹 퇴치·교육 대중화·곡물 비축·물가 안정 등 신장성 정부 시책 전반을 포함하였다.

항일 여론 조성의 핵심 매체는 『신장일보』였다. 반제회가 회원과 청년들을 동원하여 선전 활동을 하면 『신장일보』는 그 내용을 상세한 글로 적어 다시 여론전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능하였다. 『신장일보』는 만주사변, 1·28 상하이사변 등 항일 관련 기념일마다 대대적인 기념 사설을 게재하였다. 1939년 4월 4일 게재된 「1·28 7주년 기념」은 1·28이 전국 민중의 항일 의지를 고양하고 시안사변을 거쳐 항일민족통일전선 수립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계기였음을 논증하면서, 말미에 “신장에서 6대정책을 강화하고 반제친소 공작을 강화하며 신신장 건설에 적극 참여하여 신장을 항일 최고의 후방으로 만든다”는 행동 방향을 제시하였다.⁵⁸⁾ 중국 공산당원이 집필한 항일 기념 사설이 성스차이의 6대 정책 강화와 신신장 건설 지지로 귀결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신장일보』가 중국공산당의 독자적 선전 매체가 아니라 성스차이의 통치 노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기능하였음을 보여 준다. 1938년 11월에는 마오쩌둥의 「지구전을 논한다(論持久戰)」를 소개하는 사설을 실어 항전 의지를 인민들에게 전파하였으며,⁵⁹⁾ 1940년부터 『신장일보』는 「국제일주」 등 주요 시정 칼럼을 추가했고 일본과 독일의 파시즘 침략 전쟁의 발전 상황을 분석하는 글을 적극적으로 게재했다. 1941년에는 7·7항전 4주년 기념 특집과 「항전영웅사적」 전문지를 편찬하는 등 항전 의식 고양을 위한 다양한 기획을 이어갔다.⁶⁰⁾

항일 선전 활동은 신장학원을 거점으로도 전개되었다. 1937년 성스차이의 초청으로 신장에 들어온 두중위안(杜重遠)^{은61)} 신장학원 원장을 맡아 항일 후방 기

58) 黎, 「紀念“九·一八”堅持敵後抗戰」(原載 1939年 9月 20日 『新疆日報』); 李何, 「“一·二八”七週年紀念」(原載 1939年 4月 4日 『新疆日報』),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工作委員會 編, 1993, 『抗日戰爭時期中國共產黨人在新疆日報社的活動』, 新疆人民出版社, 133-140쪽.

59)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工作委員會, 1993, 『抗日戰爭時期中國共產黨人在新疆日報社的活動』, 新疆人民出版社, 127쪽.

60) 王晉林·秦生, 2007, 『挽救民族的危亡: 西北抗日救亡史』,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2쪽.

61) 두중위안은 랴오닝성 출신으로, 1934년 항일 구국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상하이에서 『新生』이라는 잡지를 창간하였고, 사회상에서 애국구망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힘쓴 인물이다. 1937년 중일전

지 건설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두중위안은 정치경제학과·교육학과·언어문학과를 설립하고 마오쩌둥의 「지구전을 논한다」를 강의하며 학생들과 함께 유격 훈련을 하는 등 항일 교육을 직접 실천하였다. 학생들을 조직해 선전대를 꾸려 곳곳을 다니면서 항일 정치 상황을 알리고 전쟁 전선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모금을 독려하였다.⁶²⁾ 1939년 여름에는 각 민족 인사 200여 명으로 구성된 '신장학원 여름 이리 여행단'을 조직하여 북신장 8개 현을 순회하며 군중대회에서 50여 차례 연설하고 항일 연극과 문예 프로그램을 공연하였다.⁶³⁾ 그러나 두중위안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성스차이가 이를 허용했기 때문이었고, 그 허용의 범위는 성스차이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었다. 1941년 5월 성스차이는 두중위안을 「왕징웨이 계열의 음모 폭동 사건」 주모자로 몰아 체포하였다. 성스차이는 두중위안의 고문직을 박탈한다는 명령을 내리고 이후 신장학원이 폐쇄하였다.⁶⁴⁾ 두중위안에게 적용된 혐의는 트로츠키주의자이자⁶⁵⁾ 왕징웨이 계열이자 공산당과도 연계되었다는 것으로,⁶⁶⁾ 이념적으로 상호 모순되는 죄목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은 성스차이가 반대파를 제거할 때 구사하던 전형적인 정치적 수사였다.⁶⁷⁾ 두중위안과 함께 신장으로 초청받았던 인사들도 대부분 연루되어 체포되었고, 두중위안은 1943년 옥중에서 사망하였다. 항일 선전의 실무를 담당했

쟁이 발발한 이후 두중위안은 기자로서 항일 선전을 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1937년 9월 30일 성스차이가 보낸 장위안푸(張元夫)와 함께 신장을 항일후방근거지로 건설하는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장으로 가서 1939년 신장학원 원장을 맡았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성스차이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연금되었다가 "비밀공산당원", "전복활동을 하려했다"는 죄명으로 체포되었다. 두중위안과 관련해서는 馮曉蔚, 2018, 「杜重遠新疆遇害始末」, 『文史春秋』 第7期; 金沖及, 2000, 「杜重遠和『新生』周刊」, 『歷史研究』 第5期 참고.

- 62) 高啟榮, 1998, 「杜重遠在新疆」, 餘駿升 主編, 『新疆文史資料精選』(第四輯), 新疆人民出版社, 167쪽.
 63) 王晉林·秦生, 2007, 『挽救民族的危亡: 西北抗日救亡史』,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21쪽.
 64) 李明章, 1987, 「杜重遠來新和被害經過見聞」, 『新疆文史資料選輯』(第二十輯), 新疆人民出版社, 138쪽.
 65) 高啟榮, 1998, 「杜重遠在新疆」, 餘駿升 主編, 『新疆文史資料精選』(第四輯), 新疆人民出版社, 162-170쪽.
 66) 餘駿升 主編, 1998, 『新疆文史資料精選』(第二輯), 新疆人民出版社, 188-189쪽.
 67) 이선희, 2025, 「1930년대 두중위안(杜重遠)의 시국 인식과 항일 활동 공간의 확대」, 『中國近現代史研究』 第105輯, 102쪽.

던 인물이 성스차이에 의해 제거된 이 사건은, 신장에서의 항일 활동이 성스차이의 통치 의지에 종속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스차이는 집권 초반부터 반제국주의, 특히 항일을 주장하면서 집권했다. 일본의 침략이 구체화하고 위협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성스차이의 정치적 입지는 강해졌다. 성스차이는 항일을 이유로 신장 인민의 단결을 강조하고 촉구할 수 있었으며 신장이 성스차이 1인이 통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만들었다. 성스차이의 집권 초기 함께했던 인물들이 교체되거나 그들의 자리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성스차이 지위와 권력만큼은 그대로 유지되고 오히려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항일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목적과 당위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중소 교섭의 지정학적 입지 구축

성스차이는 반제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6대정책교정(六大政策教程)』이나 『정부목전주요임무(政府目前主要任務)』 등 교재를 편찬·배포하여 신장 내의 정치 인식을 체계화하였다. 이 교재들은 성스차이가 당시 국제 정세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6대정책교정』에서 성스차이는 현재의 국제 질서를 제국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반제 진영이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하였다. 그에게 영국·프랑스는 독일의 반소 음모에 협력하면서 중국 항전을 방해하는 세력이었고, 왕징웨이(汪精衛)의 투항은 이 세력에 기댄 배신이었다.⁶⁸⁾ 반면 소련은 “세계 약소민족을 원조하는 국가이자 세계 화평의 지주”로 규정되었다. 영·프를 배제하고 소련만을 유효한 외교 노선으로 설정하는 이 인식 위에서, 성스차이는 신장의 지정학적 위상을 세 층위로 제시하였다. 첫째, 신장은 소련과 접경하여 물질적 원조를 받는 위치에 있다. 둘째, 4·12 정변 이후 일제가 신장을 반소 음모의 거점으로 삼으려 끊임없이 공작을 벌이고 있다. 셋째, 신장은 “중국 항전과 소련 사이의 유일한 교통 다리(唯一橋樑)”이다.⁶⁹⁾

68) 盛世才, 1942, 『六大政策教程』 第一分冊, 新疆民衆反帝聯合會出版, 66-67쪽.

69) 盛世才, 1942, 『六大政策教程』 第一分冊, 新疆民衆反帝聯合會出版, 67쪽.

1941년 출간된 『정부목적주요임무』에서는 이 인식이 구체적인 행정 지침으로 이어진다. “항전 중요 후방의 지역은 변방에 있어 원난과 신장은 전국 항전의 중요 후방이다. 신장은 중국의 서북 끝에 있어 유럽과 통하며, 특히 세계 화평을 지키는 보루로 소련의 요도(要道)가 된다”라고⁷⁰⁾ 하면서 신장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성스차이는 일제가 중국의 많은 지역을 점령한 원인을 무기의 질적 우위에서 찾고, “중국 군대에 부족한 것은 신식 무기와 비행기”라고 진단하였다. 이어서 “소련에서 신식 무기와 비행기를 가져온다면 신장의 400만 민중은 당연히 교통 운수의 안전과 신속함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리에서 디화, 디화에서 하미, 하미에서 싱싱사에 이르는 자동차 도로의 완성과 미완성 구간의 보수를 신장 정부의 핵심 임무로 제시하였다.⁷¹⁾ 이 방침은 집권 초반부터 진행해 온 교통 인프라 구축과 맞닿아 있었다. 성스차이는 1934년 교통처를 설치하고 1935년 공로국(公路局)을 설치하여 도로 정비를 시작하였다. 1936년에는 소련에서 온 인사들을 교통처에 배치하여 통신망을 갖추도록 하였다. 항일전쟁 발발 이전에 이미 이리에서 디화, 하미에 이르는 총 1,895km의 도로가 건설되어 북신장의 주요 거점이 연결되었다. 항전이 시작된 이후에는 1939년 5월 신장성도로회의(全省公路會議)를 소집하여 대중을 동원한 도로 건설을 독려하였고, 1942년까지 3,423km의 도로가 완성되었다.

소련의 군수물자 수송 경로를 둘러싼 교섭에서도 신장의 지정학적 위치가 확인된다. 1938년 3월 중국 외교부장 왕충후이(王寵惠)가 몽골 경유 공로 개통을 소련에 요청하였을 때, 駐신장 소련 대표 루가네츠(魯加涅茨)는 신장 경유 공로가 더 유리하다고 본국 정부에 건의하였다. 신장 경유선의 유지 비용이 저렴하고 몽골 고비사막 구간은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소련 부외교인민위원 스토모니야코프(斯托莫尼亞科夫)는 이를 받아들여 “신장 경유 공로선이 몽골 경유보다 양국 교통 운수 활동에 더 유리하다”라고 결론지으며 몽골 경유 협상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⁷²⁾ 신장 경유 노선은 중국 측의 요청이 아니라 소련 측의 판단으로 선택

70) 盛世才, 1941, 『政府目前主要任務』, 二, 新疆民衆反帝聯合會出版, 23쪽.

71) 盛世才, 1941, 『政府目前主要任務』, 二, 新疆民衆反帝聯合會出版, 29-30쪽.

된 것이었다.

신장을 경유하는 것도 국민정부의 이해관계와도 맞았다. 국민정부는 1937년 소련과 5년 기한의 「중소상호불가침조약(中蘇互不侵犯條約)」을 체결하고 소련으로부터 신용 차관과 군수물자를 제공받기로 합의했다. 국민정부는 소련과의 협력이 가능해지자 가장 먼저 항공 군수물자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이때 신장은 소련에서 지원받은 군수물자를 보관할 지역으로 거론되었다. 구체적으로 1937년 8월 8일 국민정부 항공위원회 참모처장 선더세(沈德燮)는 소련으로부터 비행기 200대를 사들이라는 명령을 받아 14일 소련에 무기 공급협정 초안을 제출했다. 초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항공기 350대, 탱크 200대, 대포 236문을 한 달 안에 제공하고 소련 조종사·항공기사·포병 등을 파견해 군사훈련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8월 20일 장팅푸(蔣廷黻) 주소련대사에게 보낸 전보에는 “(소련의 무기를) 받아줄 곳은 신장으로 무관을 파견하여 다량의 기름을 저장할 공간을 새롭게 준비할 것을 신장에 요청하였다. 신장 변방독판 성스차이도 전보로 이미 찬성했다”는 내용이 있다.⁷³⁾

국민정부-소련 교섭에서 신장은 협의 없이 배정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성스차이는 이 교섭 구도 안에서 신장성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신장의 교통망 위에서 소련의 군수물자 수송이 실행되었다. 소련은 비행기를 분해해 트럭으로 하미까지 운반하였고, 신장성 정부는 고산 지역과 사막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 이동을 지원하였다. 1938년 4월 하미에 도착한 비행기 부품은 현지에서 조립·시험 비행을 거쳐 란저우로 보내졌으며 이 과정이 18~20일 걸렸다. 이러한 방식으로 비행기(I-15bis) 62대와 항공 폭탄·부품 등 총 2,332t이 수송되었다. 1937년 7월부터 1938년 여름까지 신장에서 란저우로 운송된 무기·휘발유·장비·의약품은 6,000톤 이상에 달하였고, 항공기 985대·탱크 82대·대포 1,317문

72) No20307, 「魯加涅茨致外交人民委員部電：開通中蘇公路交通線(1938年 3月 1日)」; No20308, 「斯托莫尼亞科夫致魯加涅茨電：使用中蘇公路(1938年 3月 19日)」, 沈志華 編譯, 2012, 『俄國解密檔案：新疆問題』, 烏魯木齊：新疆人民出版社, 76-77쪽.

73) 張青松, 2018, 『中國上空的鷹：蘇聯援華航空志願隊戰史1937-1941』, 北京：中國致公出版社, 2-3쪽; 呂芳上 主編, 2014, 『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五冊, 臺北：國史館·國立中正紀念堂管理處·財團法人中正文教基金會, 386쪽.

이 이 경로를 통해 전달되었다.⁷⁴⁾

소련이 신장 경유를 선택한 구도 안에서 성스차이는 신장성 정부의 독자적 관할권을 확보하려 하였다. 1938년 6월 스토모니야코프는 독일 항공회사 '유라시아(歐亞)'의 신장 남부 공역 비행 활동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신장 전체 공역의 비행 활동을 신장 지방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방안이 실현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더 원하는 바"라고 하였다.⁷⁵⁾ 소련은 신장 공역 관할을 국민정부가 아닌 성스차이에게 귀속시키는 방안을 원했던 것이다. 이 바람은 같은 해 9월 성스차이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몰로토프(莫洛托夫)·보로실로프(伏羅希洛夫)와 직접 회담하면서 다시 확인되었다. 스탈린이 신장의 항공 노선 협약을 단독으로 소련과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직접 묻자, 성스차이는 "한커우(漢口)-하미 구간은 중앙정부가 관할 하고 하미-알마티 구간은 자신이 직접 책임진다"라고 답하였다. 보로실로프도 "본래 그래야 한다"라고 하였다.⁷⁶⁾ 이를 통해 성스차이가 신장 구간 항공 노선에 대해 국민정부를 우회하여 소련과 독자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소련이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탈린과 성스차이의 담화 중 보로실로프는 성스차이에게 두 가지를 추가로 물었다. 국민정부가 디화에 대규모 비행기 제조공장을 건설할 계획임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대규모 군사학교 설립 계획을 알고 있는지였다. 성스차이는 전자에 대해서는 駐소련 대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후자에 대해서는 디화에 항공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⁷⁷⁾ 이것은 국민정부와 소련 사이에서 1937년 하반기부터 논의한 비행기 제조공장 설립에 관한 논의를 성스차이가 알고 있는지 확인한 것이었다. 스탈린은 1937년 11월 양제(楊傑)

74) 張青松, 2018, 『中國上空的鷹: 蘇聯援華航空志願隊戰史1937-1941』, 北京: 中國致公出版社, 10쪽; 王晉林·秦生, 2007, 『挽救民族的危亡: 西北抗日救亡史』,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167쪽.

75) No20311, 「斯托莫尼亞科夫致魯加涅茨電: 蘇中航線問題(1938年 6月 5日)」, 沈志華 編譯, 2012, 『俄國解密檔案: 新疆問題』,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80쪽.

76) No20313, 「斯大林等與盛世才談話紀要: 中蘇關係(1938年 9月 2日)」, 沈志華 編譯, 2012, 『俄國解密檔案: 新疆問題』,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82쪽.

77) No20313, 「斯大林等與盛世才談話紀要: 中蘇關係(1938年 9月 2日)」, 沈志華 編譯, 2012, 『俄國解密檔案: 新疆問題』,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82쪽.

와의 담화에서 비행기 외부 공급의 한계를 지적하며 비행기 제조공장 합작 설립을 먼저 제의하였다.⁷⁸⁾ 소련은 공장 부지로 디화를 주장하였고 국민정부는 윈난이나 구이린을 주장하면서 결정이 더뎠다.⁷⁹⁾

비행기 제조공장 교섭은 1939년 10월 소련이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으면서 진전되었다. 디화에 연간 300대 생산 능력의 비행기 조립 공장을 건설하되 투자 구성을 소련 50%, 국민정부 25%, 신장성 정부 25%로 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⁸⁰⁾ 국민정부 측 협상 창구였던 장쑤(張群)은 신장성의 지분 참여 문제를 언급하면서 “아마 성스차이 본인이 주동적으로 지분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파악하였다.⁸¹⁾ 실제로 이 시기 성스차이는 소련과의 각종 교섭에서 중앙정부의 지시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입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었고, 국민정부는 이를 내부적으로 불편하게 여기면서도 표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⁸²⁾ 후속 협상에서 국민정부 측은 소련과의 대등한 투자 비율에는 동의하면서도 중앙정부와 신장성 정부 간 지분 배분은 “내부에서 협의하겠다”라며 유보하였다.⁸³⁾ 성스차이는 소련-국민정부 간 군사협력의 틀 안에서 신장성 정부의 독자적 지분을 확보하려 하였고,

78) 「軍事委員會參謀次長楊傑·中央執行委員張沖自莫斯科呈蔣委員長報告與史達林委員長晤談關於助我製造武器·飛機及請蘇聯參戰等問題之談話內容簽呈(1937.11.12)」,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三編 戰時外交(二)(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1981)

79) 1938년부터 시작된 부지 선정 논의에서 소련은 디화를 공장 위치로 고집하였다. 소련 측이 제시한 이유는 구체적이었다. 윈료를 10월 내에 공급할 수 있고 설립이 신속하여 단기 내 생산에 착수할 수 있으며, 생산지에서 공급지로의 운송이 비교적 가깝다는 것이었다. 반면 국민정부는 영국·프랑스와의 연계가 용이하고 버마공로(滇緬公路)를 활용할 수 있는 윈난(雲南)이나 구이린(桂林) 같은 서남부 내지를 주장하면서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 소련이 처음부터 디화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반면 중국은 서방과의 연계를 우선시하고 있었던 것이다(정형아, 2021, 「중일전쟁시기 중소 양국의 협력과 갈등: 비행기 제조공장 합작 설립 논의를 중심으로」,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제60집, 103-107쪽).

80) No.20319, 「洛佐夫斯基致潘友新電: 烏魯木齊飛機廠(1939年 10月 14日)」, 沈志華 編譯, 2012, 『俄國解密檔案: 新疆問題』,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98쪽.

81) No.20321, 「潘友新與張群會談記錄: 烏魯木齊飛機廠(1939年 10月 19日)」, 沈志華 編譯, 2012, 『俄國解密檔案: 新疆問題』,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00쪽.

82) 정형아, 2021, 「중일전쟁시기 중소 양국의 협력과 갈등: 비행기 제조공장 합작 설립 논의를 중심으로」,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제60집, 106쪽.

83) No.20322, 「潘友新與周至柔會談記錄: 烏魯木齊飛機廠(1939年 10月 24日)」, 沈志華 編譯, 2012, 『俄國解密檔案: 新疆問題』,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01쪽.

이 시도는 국민정부로 하여금 지방 정권의 이해관계를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성스차이의 이러한 행보는 비행기 제조공장 교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성스차이는 스탈린과의 만남에서 국민정부의 지시 없이 주도적으로 신장에 항공학교를 설립하자고 요청하였다. 그는 학교 건설에 큰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과 9월 중에 위원회를 조직하여 착공하고 12월에 개교할 수 있게 하자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였다.⁸⁴⁾ 항공학교 설립은 중국 중앙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소련과 논의하여 추진 중이던 사안이었고 장제스는 성스차이에게 관련 사무를 위임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성스차이는 소련 최고 지도부와의 직접 면담에서 이 사안을 주도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는 성스차이가 중국 중앙정부와 소련 사이의 교섭 구도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맡으려 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후 이닝(伊寧)에 설립된 항공학교는 성스차이의 입경 허가 없이는 설립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고, 성스차이는 학교 운영에도 지속적으로 간섭하며 국민정부의 영향력이 신장 현지에 미치는 것을 제한하였다.⁸⁵⁾

이상에서 살펴본 성스차이의 일련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정부목전주요임무』에서 성스차이는 중소 영구 친선의 근거를 세 층위로 제시하였다. 소련은 “세계 약소민족을 원조하는 국가이며 세계 화평의 지주”이고, “소련의 원조 없이 중국이 일본의 진공을 버텨낼 수 없으므로 소련은 중국의 유일한 진정한 친구”이며, “4월 혁명(4·12 정변) 이후 친소 정책이 발전하여 신장의 400만 민중이 그 전도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라는 것이었다.⁸⁶⁾ 또한 1938년 9월 스탈린과의 만남에서 성스차이는 소련공산당에 직접 입당 의사를 표명하였다. 보로실로프가 입당이 그의 업무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였음에도 성스차

84) 정형아, 2021, 「중일전쟁시기 중소 양국의 협력과 갈등: 비행기 제조공장 합작 설립 논의를 중심으로」,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제60집, 106-107쪽; 정형아, 2021, 「중일전쟁시기 중국 공군인력 양성과 소련: ‘이닝(伊寧)항공학교’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92집, 66쪽.

85) 정형아, 2021, 「중일전쟁시기 중국 공군인력 양성과 소련: ‘이닝(伊寧)항공학교’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92집, 67-74쪽.

86) 盛世才, 1941, 『政府目前主要任務』二, 新疆民衆反帝聯合會出版, 34-35쪽.

이는 요청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성스차이는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 달라고 요청하였다. 담화 기록에는 “스탈린이 비밀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독판은 자신 외에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⁸⁷⁾ 영·프를 배제하고 소련만을 독점적 외교 노선으로 설정하고, 국민 정부를 우회하여 소련과 독자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며, 비행기 공장과 항공학교 교섭에 국민정부의 지시 없이 개입한 일련의 행위는 소련에 대한 진정한 이념적 친연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소련을 향한 충성심을 가지적으로 표명하면서도 그것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국가 간 교섭 구도에 지방 정권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려 한 통치 전략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IV. 맺음말

본고는 중일전쟁기 신장의 항일 동원이 중국공산당·소련·국민정부 등 외부 세력의 주도가 아니라 성스차이가 통치 공고화 전략의 일환으로 직접 기획·운영한 것이었음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공산당원의 신장 유입과 신장민중반제연합회(반제회) 조직을 검토하였다. 신장민중반제연합회는 1934년 성스차이 주도로 만들어진 조직이며 신장성 정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조직의 항전 활동 지도 등이 중국공산당의 신장 유입 이후의 일이며 중화민족의 정체성 향상에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은 신장에 들어온 이후에 실무직에 종사하였을 뿐 정책 결정자 위치에서 활동 한 것은 아니었다. 정책 결정의 권위는 반제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던 성스차이의 몫이었다. 천탄추(陳潭秋)가 반제회를 성스차이의 6대 정책 집행 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역설적으로 성스차이의 통제를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87) No20313, 「斯大林等與盛世才談話紀要：中蘇關係(1938年 9月 2日)」, 沈志華 編譯, 2012, 『俄國解密檔案：新疆問題』, 烏魯木齊：新疆人民出版社, 85쪽.

이어 항일 후방 기지 구축과 대중 동원의 두 측면을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반제회와 신장일보를 동원한 항일 여론 조성과 선전 활동이 성스차이 행정 위계의 직접적 산물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쑨이위안 항전 모금(1936년 12월)에서 시작하여 1941년까지 지속된 대규모 모금 운동은 반제회 조직망을 통해 전달되고 성스차이의 승인을 거쳐 실행되었다. 2절에서는 성스차이가 『대정책교정』과 『정부목전주요임무』를 통해 신장의 지정학적 위상을 스스로 설계하고, 소련·국민정부 양측과의 교섭에서 신장성 정부의 독자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 했음을 소련 측 외교 문서 등을 통해 입증하였다.

본고가 다루는 시기는 1935년에서 1941년까지이다. 1942년 성스차이는 친소 노선을 버리고 국민정부에 귀순하는 정치적 전변을 단행하였고, 이어 신장에 체류하던 중국공산당원들을 대거 숙청하였다. 이런 정치적 변화에 따라 항전 활동 방식은 약간 변화된 양상을 보인다. 1942년 이후 문화노군(文化勞軍)·헌기(獻機)·혜화노군(鞋襪勞軍) 운동으로 모금 항목이 다변화한다. 더불어 1942년 이후의 모금 지시 계통은 성스차이 자체 행정망이 아니라 국민정부의 직접 지시로 바뀐다. 1936~1941년 구간에는 성스차이 주도의 자체 동원 체계가 작동하였던 반면, 1942년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지시가 직접 내려오는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이 변화는 역설적으로 1941년 이전 신장의 항일 동원이 성스차이 개인의 이념적 친연이 아니라 그의 통치 기제로서 작동하였음을 방증한다.

선행 연구는 신장의 항일 동원을 중국공산당 주도론, 중소 양자관계론, 중화민족 담론 소급론의 세 갈래로 설명해 왔다. 세 갈래의 공통된 한계는 신장 항일 동원의 기획 주체를 묻지 않으며 성스차이의 신장 정책 결정자로서의 위치를 부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고는 성스차이의 역할을 드러냄으로써 그가 항일이라는 명분을 통치 자원으로 전환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수단으로 삼았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만 본문에서 성스차이의 주도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한 만큼, 국민정부·소련·신장성 정부 간의 구조적 관계와 그 역학이 성스차이의 통치 전략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에 대한 정치한 분석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사료

- 盛世才, 1942, 『六大政策教程』第一分冊, 新疆民衆反帝聯合會出版
- 盛世才, 1941, 『政府目前主要任務』二, 新疆民衆反帝聯合會出版
- 沈志華 編譯, 2012, 『俄國解密檔案: 新疆問題』,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 吐娜 主編, 2012, 『民國新疆焉耆地區蒙古族檔案選編(新疆通史研究叢書)』,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 新疆維吾爾自治區檔案局·中國社會科學院邊疆史地研究中心·『新疆通史』編撰委員會 編, 2008 『抗日戰爭時期新疆各民族民衆抗日募捐檔案史料』,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 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1998,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第五輯 第二編 政治(四), 鳳凰出版社
- 秦孝儀, 1981,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三編 戰時外交(二),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 朱文原 編, 1993, 『西安事變史料』第一冊 重要函電(上), 臺北: 國史館印行
- 呂芳上 主編, 2014, 『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五冊, 臺北: 國史館·國立中正紀念堂管理處·財團法人中正文教基金會
- 杜重遠, 1939, 『盛世才與新新疆』, 漢口生活書店出版

2. 단행본

- 劉秉榮, 1991, 『西路軍魂』, 群眾出版社
- 王柯, 2013, 『東突厥斯坦獨立運動: 1930年代至1940年代』,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 王晉林·秦生, 2007, 『挽救民族的危亡: 西北抗日救亡史』,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 張大軍, 1980, 『新疆風暴七十年』7, 蘭溪出版社
- 張青松, 2018, 『中國上空的鷹: 蘇聯援華航空志願隊戰史1937-1941』, 北京: 中國致公出版社
-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1999, 『中共新疆地方史(1937年-1966年)』, 新疆人民出版社
-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1996, 『20世紀30年代共產國際蘇聯在新疆的活動』, 烏魯木齊: 新疆大學出版社出版
-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工作委員會, 1993, 『抗日戰爭時期中國共產黨人在新疆日報社的活動』, 新疆人民出版社
- 新疆維吾爾自治區黨史委員會 編, 1985, 『新民主主義革命時期中國共產黨在新疆鬥爭紀事(1933-1949)』, 蘭州: 解放軍出版社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新疆米泉縣委員會文史資料委員會 編, 1990, 『米泉文史』第2輯, 米泉印刷廠

3. 논문

左紅衛, 2010, 「抗日戰爭時期新疆的演劇募捐和文化勞軍活動」, 『鄭州航空工業管理學院學報』(社會科學版)第29卷第4期

朱晶·朱瑛, 2010, 「論抗日戰爭時期中國共產黨在新疆的思想政治工作」, 『伊犁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第4期

劉俊鳳, 2005, 「抗日戰爭中西北地區的地位和作用」, 『咸陽師範學院學報』第20卷第3期

侯風雲, 2000, 「抗日戰爭時期的西北國際交通線」, 『江蘇社會科學』第4期

謝敏, 2021, 「抗日戰爭時期新疆各族人民愛國主義表現及現實意義」, 『新疆地方志』第3期

陳鑫, 2022, 「抗日戰爭時期中國共產黨在新疆領導的劇運研究」, 『新疆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43卷第4期

趙海霞, 2022, 「抗戰時期中國共產黨對新疆各民族中華民族共同體意識的構築」, 『新疆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50卷第4期

王欣·洪壘銘, 2023, 「抗日戰爭時期新疆地區中華民族共同體意識的構築——以『新疆日報』的考察為中心」, 『民族研究』第5期

張麗娟, 2023, 「抗日戰爭時期蘇聯軍事技術援華過程中的合作與沖突(1937-1945)——以新疆省為中心的考察」, 『中州大學學報』第40卷第3期

李成, 2023, 「抗日戰爭時期中國共產黨在新疆的青年工作研究」, 新疆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丁曉東·尚季芳, 2024, 「抗戰時期『新疆日報』中華民族觀念的書寫與傳播」, 『西北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2期

伊力哈木江·吐爾遜, 2024, 「抗戰時期中國共產黨人在新疆的革命活動研究」, 新疆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王曉斌·於雪玲, 2019, 「抗戰時期中國共產黨在新疆軍事人才的培養」, 『太原城市職業技術學院學報』第218期

馬志芹·馮樂樂, 2026, 「抗日戰爭時期中國共產黨在新疆的民眾動員」, 『隴東學院學報』第37卷第1期,

張正泉, 2025, 「抗戰時期中國共產黨促進新疆各族民眾支援抗日的歷史考察」, 『長春大學學報』第35卷第9期

馬小豔, 2013, 「略論新疆各族婦女在抗日戰爭時期的貢獻」, 『樂山師範學院學報』第28卷第1期

劉繼綿, 2005, 「論抗日戰爭時期新疆文化救亡運動的特點」, 『實事求是』第5期

高曉鋒, 2016, 「論抗日戰爭時期新疆少數民族的愛國主義精神」, 『塔裏木大學學報』第28卷第1期

蓋金偉, 2009, 「一部新疆抗戰史研究的力作——『抗日戰爭時期新疆各民族民眾抗日募捐檔案

- 史料』讀後), 『西域研究』 第4期
- 許建英·劉敏, 2023, 「從英國檔案看1942年英美關於印新驛運路線的討論」, 『中州大學學報』 第40卷 第3期
- 劉豔, 2008, 「中國共產黨新疆抗日統一戰線破裂的國際背景」, 『探索』 第1期
- 李浩·梁永康, 2009, 「中國抗日戰爭的西北國際援助生命線——蘇聯對華援助問題研究(1937-1941)」, 『江西教育學院學報』(社會科學) 第30卷 第2期
- 陳超, 1998, 「新疆抗日民族統一戰線的建立和中國共產黨人在新疆的出色工作」, 『烏魯木齊職業大學學報』 第7卷 第3·4期
- 肖中, 2013, 「新疆民衆反帝聯合會研究」, 新疆大學 碩士研究生學位論文
- 이선희, 2023, 「新疆 집권 초기 盛世才의 권력기반 구축」, 『歷史學研究』 제92집
- _____, 2024, 「1930~1950년대 중국의 신장 인식과 정책」, 전남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25, 「1930년대 두중위안(杜重遠)의 시국 인식과 항일 활동 공간의 확대」, 『中國近現代史研究』 第105輯
- 정형아, 2020, 「중일전쟁 전반기 중국의 항공전력 확보와 소련의 지원」, 『아세아연구』 63권 4호
- _____, 2021, 「중일전쟁시기 중소 양국의 협력과 갈등: 비행기 제조공장 합작 설립 논의를 중심으로」,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제60집
- _____, 2021, 「중일전쟁시기 중국 공군인력 양성과 소련: '이닝(伊寧)항공학교'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92집

투고일: 2026년 03월 20일 심사완료일: 2026년 04월 14일 게재확정일: 2026년 04월 27일

■ Abstract ■

Sheng Shicai's Anti-Japanese Strategy and the Consolidation of Power in Xinjiang (1935–1941)

Lee, SeonHui(Chonnam National University)

During the Second Sino-Japanese War, although Xinjiang had no direct contact with the front lines, it functioned as an anti-Japanese rear base where large-scale fundraising and propaganda campaigns were actively carried out. Prior studies have interpreted these activities as the result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CP) ideological work, Sino-Soviet cooperation, or the formation of a Chinese national consciousness. However, this period coincided with Sheng Shicai's rule. Upon seizing military power in 1933, Sheng positioned anti-imperialism—particularly anti-Japanese resistance—as the core of his governance, rendering anti-Japanese mobilization in Xinjiang inseparable from his strategy of consolidating rul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eriod from 1935 to 1941 and argues that anti-Japanese mobilization in Xinjiang was not driven by external forces but was planned and implemented by Sheng Shicai as part of his strategy to consolidate power. Sheng established the Xinjiang People's Anti-Imperialist Association and personally served as its chairman. The Association's organizational structure effectively transformed the provincial administrative system into a mobilization apparatus. Furthermore, the influx of CCP members into Xinjiang was also planned and controlled in accordance with Sheng's governing needs. Although CCP members were appointed to practical roles in education, finance, and media, policy-making authority remained with Sheng in his capacity as the Association's chairman. This top-down control extended to anti-Japanese fundraising, where the provincial government issued directives through the Association down to local branches, while Sheng personally approved the scope and methods. Additionally, Sheng sought to advance Xinjiang's provincial interests through negotiations with both the Soviet Union and the Nationalist Government, independently proposing participation in an aircraft manufacturing plant and the establishment of an avi-

ation school without authorizat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at Sheng's anti-Japanese mobilization was a product of governing strategy rather than ideological conviction is also evident in . In September 1938, during a visit to Moscow, Sheng held direct talks with Stalin and expressed his intention to join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while requesting that this remain strictly confidential. This contradictory behavior—openly signaling loyalty to the Soviet Union while tightly controlling its visibility—demonstrates that Sheng's pro-Soviet and anti-Japanese stance was less an expression of ideological affinity than a calculated political maneuver aimed at securing the position of the Xinjiang provincial regime within the structure of interstate negotiations.

Key words: Sheng Shicai, Xinjiang, anti-Japanese mobilization, consolidation of power, Xinjiang People's Anti-Imperialist Association, local regime